

#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구조 분석\*

## The Structure of Research Article Conclusio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김 갑 선(Kapseon Kim)\*\*

###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관련연구	V. 논의
III. 연구방법	VI.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부분의 구조와 유형을 밝힌 연구이다. 문헌정보학의 4개 학술지 논문의 결론 장(chapter)을 분석하여 '연구 관심 끌어내기', '요약하기', '논의하기', '적용하기', '확대하기'의 5개 상위범주와 11개의 하위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결론 구조의 분석도구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제목은 '결론'이 절반 이상이며, 그 다음은 '결론 및 제언'이다. 결론 장은 평균 4.2 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요소별 출현빈도는 '연구결과 요약'이 단연 우세하며, '연구 전체 과정 요약', '후속연구 제언', '연구 의의' 순이었다. 서술 분량도 '연구결과 요약'이 가장 우세하며, 결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범주는 '요약하기'이며, 그 다음은 '확대하기', '적용하기' 순이었다. 결론을 시작하는 첫 번째 요소로 가장 우세한 요소는 '연구결과 요약'이며, 결론을 마무리하는 최종 요소로 가장 우세한 것은 '후속연구 제언'이다. 결론 구조의 패턴은 도입부가 '연구 전체 과정 요약-연구결과 요약' 순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 구조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핵심기능은 '요약하기'의 구성요소인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전체 과정 요약'이다. 이는 결론을 기술하는 필수요소로 밝혀졌다. '적용하기', '확대하기'에 포함될 여타의 요인은 선택적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키워드: 결론, 논문 구조, 연구논문, 학술지 논문, 문헌정보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ucture and pattern of conclusions chapters in research articles selected in four representative journals published in Korean LIS. To analyse the structure and pattern five categories and eleven elements drawn from RA conclusions were used such as 'Drawing Attention', 'Summarizing', 'Discussing', 'Applying' and 'Extend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Conclusions' was the most used title of the chapter, and then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e conclusions sections were consisted averagely 4.2 elements. 'Summary of findings' was the most frequently elements, followed by 'summary of research process', 'suggestion of further research' and 'implication'. Also, 'summary of findings' was the most used in lengths. 'Summarizing' was the highest frequency in five categories, followed by 'Extending', and 'Applying'. The dominant first element begun conclusions sections was 'summary of findings' and the final element closed conclusion was 'suggestion of further research'. 'Summary of research process - summary of findings' order was found in the most frequent pattern of conclusions. 'Summary of findings' and 'summary of research processes' in 'Summarizing' were found as essential functions, while other elements, such as significance, 'application', 'limitations' in 'Applying' and 'Extending' were found as optional functions in the conclusions of Korean LIS research articles.

Keywords: Conclusions, Conclusion Section, Structure, Research Articl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2018)에서 일부 내용을 발표 함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kapskim@jwu.ac.kr)

•논문접수: 2018년 8월 11일 •최초심사: 2018년 8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9월 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111-132, 2018. [http://dx.doi.org/10.16981/kliiss.49.201809.111]

## I. 서론

논문은 학술공동체에서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학술 논문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정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대표적인 표준 체제가 과학적 연구의 논리적 절차에 따른 IMRAD (Introduction,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형식이다. IMRAD 형식(Sollaci & Pereira 2004; Wu 2011)은 실증학문 분야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과학성을 표방하는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적용하는 논문 구조이다.

학술논문의 구조에 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는 초록이 논문의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대표성과 중요성 때문에 주로 초록을 대상으로 정보검색적, 서지학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대표적 연구로는 국내 사회과학분야 초록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장혜란 1996), 정보관리학회지에 수록된 초록의 구성요소와 유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장우성 2016)가 있다. 또한, Scopus 사회과학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응용언어학의 개념인 무브분석을 적용하여 초록의 구조 패턴을 분석한 연구(Eungi Kim 2014)가 있다.

국내외 응용언어학 분야는 학문적 텍스트의 장르분석(Genre Analysis) 연구가 대표적이다. 장르분석은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외국어 쓰기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량의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의 구조 일부분(초록, 서론, 연구방법, 결과, 결론 등)을 대상으로 계량적 연구를 수행하여 주요 범주(무브)와 구조를 제시하여 왔다. 국내 응용언어학 분야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목적 한국어쓰기 교육 방안으로 주로 국내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논문의 구조에서 결론(conclusion)은 논문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fact)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결과(result)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구조를 분석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결론의 구조 분석을 위하여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학술지 논문은 학계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가장 공식적인 학술매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자들이 학위논문보다 분량이 짧은 학술지 지면에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결론 구조를 구성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결론의 구조 분석을 수행한 대다수의 국내 응용언어학 분야 연구가 주로 석사학위논문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분석 대상의 영역을 넓혀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실증적 경험적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다수 논문이 실증적 경험적 논문이며, 실증 경험적 논문은 IMRAD형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시 내용의 식별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논문의 구조 중 결론 부분의 분석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논문 구조 중 초록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검색적 연구 관심사로 오랫동안 다양하게 논의하여 왔지만 논문의 결론 부분은 상대적으로 논의와 관심의 대상이 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결론 부분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이다. 결론 장(chapter)은 논문의 종결부로서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전달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논문에서 초록 이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논문의 구조적 측면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논문의 결론 부분의 특색을 분석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부분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결론 구조를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 부분의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부분의 특색을 파악한다. 셋째, 결론 부분의 구조와 구조 유형을 식별한다.

## II. 관련연구

Bitchener(2010, 198)는 학위논문 결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결론은 첫째, 연구의 목적 및 핵심 연구방법론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둘째,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셋째, 이론 개발과 연구의 공헌, 제한점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재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평가한다. 넷째,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한다. 다섯째, 후속연구에 관한 제언을 한다.

응용언어학 등 분야에서 수행한 논문의 구조에 관한 분석 부분을 살펴보면 주로 초록(Lores 2004; Tseng 2011; 조은영 2012; 강민경 2015; 유민애 2015; Darabad 2016; Kim 2016; Al-Khasawneh & Maher 2017), 초록과 서론(Samraj 2005), 논문 제목(Kim 2015), 서론(Lindeberg, 1994; 박은선. 2006; Ozturk 2007; Yaghoubi-Notash & Aliabadi 2012; 김영규, 이은하 2008; 이슬 2016), 선행연구(Kwan 2006; 이선영. 2015; 박수연 2016), 연구방법(Bruce 2008; 윤여옥 2011), 결과(Brett 1994; Bruce 2008; 이수연 2011), 논의(Hopkins & Dudley-Evans 1988; Peacock 2002), 결론 등이다.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수행한 논문의 결론연구는 무브(move) 분석을 적용하여 특정 분야의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논문 결론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모형을 제시하였다. 장르분석에서 무브(이동마디)란 “문어 및 구어 담론에서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담론적 혹은 수사학적 단위”이며(Swales 2004, 228-229), 수사적(rhetorical) 무브는 하위의 수사적 요소인 스텝(step)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자는 장르연구에서 스텝은 하위 구성요소

(elements)로, 무브는 관련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상위범주(categories)로 이해하고 무브 구성을 결론의 구조나 모형으로 간주하였다.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수행한 결론 구조의 선행연구의 유형을 세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주제는 특정 주제나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 주제를 선정하거나, 주제 분야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선정하기도 한다. 둘째, 분석대상 논문 유형은 주로 석박사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 중 한 유형을 선정하여 단일 분석하거나, 비교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논문유형을 모두 분석하기도 한다. 셋째, 언어 별 배경이 다른 논문 저자의 서술 구조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일언어로 작성된 모국어 화자(話者)와 외국어 학습자의 결론 서술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동일 주제 분야의 영어 화자와 모국어 화자의 결론 서술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넷째, 결론의 구조 분석 모형은 분석 대상 주제를 분석하여 모형을 도출하거나, 선행연구의 기존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존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향이다.

Hewing(1993)은 경영학분야 석사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결론을 분석하였다. 결론의 기능으로 ‘보고하기’, ‘논평하기(평가, 추론, 주장 및 결론)’ 및 ‘제안하기’를 제시하였다. Yang & Allison (2003)은 응용언어학 분야의 20개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여 결론의 구조를 ‘연구 요약하기’, ‘연구 평가하기(연구의의, 한계, 방법론 평가)’, ‘연구의 연역추론(후속연구 제언, 교육적 의미 도출)’로 도출하였다. Yang & Allison (2003) 모형의 장점은 결론을 논의와 별도로 분리하여 결론 부분만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연구 요약하기’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대부분의 결론은 직선 구조임을 밝혔다.

Bunton(2005)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 분야의 45편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결론 역할을 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결론의 구조를 ‘도입적 재진술’, ‘연구공간 통합하기’, ‘실제적 적용/함의/권고’, ‘후속연구 제언’, ‘결론적 재진술’로 도출하였다. 더불어 학분분야에 따라, 결론의 지향점(‘이론 지향적 결론’, ‘현장 지향적 결론’)에 따라 결론 구성요소의 출현빈도와 배열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서술 분량면에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결론은 과학기술분야의 결론 보다 길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Bitchener(2010)는 학위논문 결론의 모형을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론의 재진술’, ‘연구결과 요약’, ‘연구의 기여도 평가’, ‘후속연구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경험적인 논문의 결론은 최소한 4개의 무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Morales(2012)는 Yang & Allison(2003)의 결론 모형을 적용하여 결론 구조에 문화 간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응용언어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영어로 기술된 필리핀인 연구논문과 일본인 연구논문의 총 16편의 결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양국의 분석 대상 논문 결론부에서 연구의 전반적 ‘요약’의 출현빈도가 제일 높았다. 특히, 필리핀인 논문에 비해 일본인 논문에서 ‘연구의 요약하기’가 필수적으로 기술되었다(100%). 분석대상 논문에서 필리핀인 논문은 ‘연구의 기여’를 필수적으로 기술하는 경향이며(100%), 일본인 논문은 주요 구성요소들은 두루 간략하게 서술하는 경향이였다.

Maswana, et al. (2015)은 Swales(1990)의 모형을 적용하여 컴퓨터공학, 환경공학, 구조공학, 화학공학, 전기공학 분야 연구논문 총 67편을 분석하여 초록, 서론, 결론 부분이 연구논문의 공통적 필수 구성요소라고 제시하였다.

Jahangard, Rajabi, & Khalaji (2014)는 Dudley-Evans (1994)의 논의(Discussion) 모형을 적용하여 기계공학과 응용언어학 분야의 이란인 연구논문과 영어 원어민의 연구논문 총 40편의 결론 부분의 구조가 언어적, 주제 분야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들은 연구논문의 결론 구조로 ‘정보무브(이론, 연구목적 및 방법론의 배경 제공)’, ‘연구결과들’, ‘주장(결과의 일반화)’, ‘제약’, ‘권고(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Soiled-Montreal(2015)은 컴퓨터과학 분야의 48편의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하고, 결론의 구조로 ‘연구 재방문하기’, ‘연구공간 통합하기’, ‘실제적 적용과 합의 제시하기’, ‘후속연구 권고하기’, ‘연구의 재요약’으로 제시하였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무브는 ‘연구공간 재방문’, ‘연구공간 통합하기’, ‘후속연구 제안하기’ 이었다.

Zamani, & Ebadi (2016)는 Yang and Allison (2003)의 결론모형을 적용하여 토목공학과 응용언어학 분야의 페르시아어 연구논문과 영어논문의 결론 구조의 언어적, 주제 분야별 결론 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으며,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였다. 두 언어 논문의 공통점은 ‘연구 요약’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페르시아어 논문이 영어논문보다 연구요약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페르시아어 논문은 구성요소 중 연구의의와 연구의 교육적 의미 기술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반면에 영어 논문은 여타의 구성요소를 두루 기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 응용언어학 분야의 논문 결론 연구는 주로 Bitchener(2010)의 논의(Discussion)모형과 결론모형을 결합한 수정모형을 개발하여 국내 석사학위논문을 분석하였다. 이주희(2012)는 Bitchener(2010)의 수정 결론 모형(Bitchener의 D+C)을 적용하여 한국어 모어(母語)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교육 분야 석사학위논문의 결론 구조를 분석하였다. 수정된 결론모형은 ‘[연구] 목적의 재진술과 연구방법론적 접근’, ‘결과의 요약(핵심결과 요약)’, ‘결과나 발견에 대한 평가/논평’, ‘연구의 기여도(공헌도)평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이다. 서지혜(2012)도 학위논문의 결과 부분을 분석하였다 (학위논문의 원문 이용 불가). 박지희(2015)도 Bitchener(2010)의 결론모형을 수정하여 한국어 모어화자와 유학생의 마케팅 분야 석사학위논문의 결론을 분석하였다. 수정된 결론 모형은 ‘배경 정보 제공’, ‘결과의 진술 제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논평’,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구조, 경향성 및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의 2016년 게재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분석 대상 논문은 논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증적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한 사회과학적, 과학적 논문이며, 한국어로 기술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분석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IMRAD 구조를 갖추고 있어 결론 부분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론의 구성요소 식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았던 인문학적 특성이 강한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 분석도구

결론의 분석도구 개발은 연구자의 강조점과 착안점에 따라, 분석 분야에 따라 도출되는 구성 요소와 명명(命名)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서양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제시되어 국내 응용언어학 장르연구에서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결론 분석도구(예: Bitchener 2010)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을 직접 분석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결론 분석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결론 부분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222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11개의 결론 구성요소(elements)를 도출하였다. 이를 다섯 개로 범주화하여 결론의 구성범주(categories)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의 결론 분석도구로 적용하였다.

결론 부분의 분석준거의 다섯 개의 상위범주는 ‘연구관심 끌어내기’, ‘요약하기’, ‘논의하기’, ‘적용하기’, ‘확대하기’로 구성하였다(표 2). ‘연구관심 끌어내기’는 연구자가 결론에서 연구주제나 탐구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논문의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결론의 도입부로 결론의 상단에 위치하는 경향이다. 이 범주에는 탐구현상 혹은 탐구주제의 ‘현황이나 추세’ 언급하기, ‘연구의 필요성’ 제시하기, 연구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탐구현상의 ‘개념이나 용어 설명하기’ 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요약

하기'는 논문의 연구 전체 과정을 요약하고, 핵심적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연구 목적, 대상, 방법, 절차 등의 위주로 간략히 기술하는 '연구의 전체 과정 요약하기', '연구절차나 방법을 별도로 상세히 기술하기', '핵심 연구결과 요약하여 제시하기'의 세 가지를 구성요소로 구성하였다. '논의하기'는 본문에 없는 내용들을 결론부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논의하는 부분을 지칭하였다. '적용하기'는 연구의 의의와 기여점을 언급하고 연구결과를 관련 실무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의의'와 '연구 적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확대하기'는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하며 미래 연구와 연관을 맺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결론의 종결부로서 가장 하단에 주로 위치하는 경향이다.

#### 4. 분석내용

본 연구는 결론의 구조와 유형(pattern)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논문에서 결론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결론의 분석 준거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결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Buntun 2005)를 참조하여 결론과 관련된 부차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첫째, 논문의 전체 구조에서 결론 부분의 바로 앞 장이 무엇을 다루는가를 검토하였다. 논문의 전체구조는 논리적인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결론의 바로 앞부분은 결론의 내용구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 할 수 있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앞 장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론 앞 장의 제목을 검토하였다.

둘째, 결론 장의 제목을 검토하였다. 논문 각 부분의 제목은 논문 전개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자가 선호하는 결론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 부분의 구성 요소를 11개로 도출하였다. '탐구주제 현황'은 논문이 탐구하는 현상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현황이나 추세를 언급한 내용이다. '연구 필요성'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나 연구의 착수 이유를 언급한 내용이다. '탐구주제 개념'은 연구주제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독자에게 친숙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탐구현상이나 용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연구 전체 과정 요약'은 연구 목적, 대상, 방법, 절차 등 위주로 연구의 전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연구 절차'는 연구절차와 단계를 별도로 상세하게 언급하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연구결과 요약'은 연구를 통해 밝혀낸 주요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논의'는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거나, 본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결론부에서 제시한 경우이다. '연구 의의'는 연구결과의 의미, 함의, 의의를 언급하는 내용이다. '연구 적용'은 연구결과를 관련 이론이나 실무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연구 한계'는 수행한 연구의 접근점, 방법론 등과 관련한 한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후속연구 제언'은 연구의 제약 등으로 다루지 못했던 점,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향후 과제 등 후속연구의 주제나 방법론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넷째, 결론 부분의 각 요소의 출현 빈도를 검토하였다. 도출된 11개 요소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여 연구자들이 결론을 서술할 때 자신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선호하는 결론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결론 부분의 각 요소의 서술 분량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이 결론을 서술할 때 자신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요소를 어느 정도 기술하는지의 분량(길이)을 조사하였다. 각 요소의 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문단의 줄(line)을 계수하였고, 전체 문단의 개수를 산출하였다.

여섯째, 논문의 결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논문별 결론의 구성요소가 서술되는 순서를 검토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결론의 구조 유형(pattern)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결론의 구성요소와 배열순서가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일반화된 결론의 구조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분석결과

### 1. 결론의 구성요소

분석대상이 된 4개 학술지 실증적 논문의 수는 222편이다(표 1).

〈표 1〉 분석 대상 논문

논문	한문정	한도정	비블리아	정보관리	총 논문	%
분석대상 논문	63	65	45	49	222	88.4
2016 간행 논문	75	72	51	53	251	100
선정율(%)	84	90.2	88.2	92.4	88.4	

첫째, 결론의 총 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의 총 분량은 9,404줄이며, 평균은 42.3줄이다. 이는 논문 한 쪽당 평균 32줄을 수록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논문에 결론 부분이 평균 약 한 쪽 및 10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문단의 수는 총 1,329 문단이며, 평균 5.9 문단이었다(표 2).

둘째, 결론 부분 전(前) 장의 제목은 주로 ‘분석’과 ‘결과’이다. 연구결과 제시가 절반 이상(117편, 52.7%)을 차지하였다. ‘분석’으로 표기한 논문이 (63편, 28.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결과’ (54편, 24.3%), ‘방안’ (16편, 7.2%) 이었다. 결론 부분 전(前) 장에서 ‘논의’관련 제목은 소수(18편, 8.1%)에 불과하였다. ‘논의’ (7편, 3.1%), ‘논의 및 (연구)제언 (제안)’ (6편, 2.7%), ‘논의사항’ (1편, 0.4%), ‘논의 및 개선방안’ (1편, 0.4%), ‘토의 및 제



〈표 2〉 결론 구성요소의 출현 빈도 및 분량 (n=222)

구성 범주	학술지명 구성 요소	출현빈도							분량(줄)						
		문정	도정	비블	정보	계	%	% (n=222)	문정	도정	비블	정보	계	%	% (n=222)
연구 관심 끌어 내기	탐구 주제 현황	12	16	13	6	47	5.0	21.1	60.5	87	69	28.5	245	2.6	1.1
	필요성	18	19	11	0	48	5.1	21.6	81.5	88	57	0	226.5	2.4	1.0
	탐구 주제 개념	2	7	4	5	18	1.9	8.1	6.5	40	17	17.5	81	0.8	0.3
	소계	32	42	28	11	113	12.5	50	48.5	215	143	146	552.5	5.8	2.4
요약 하기	연구 전체 과정 요약	58	56	41	44	199	21.3	89.6	229.5	212	178	175.5	1795	8.4	8.0
	연구 절차	5	4	3	4	16	1.7	7.2	27	28	20.5	14.5	90	0.9	0.4
	연구 결과 요약	61	59	42	48	210	22.5	94.5	1,167	1,281	8,195	1,210	4,477.5	47.6	20.1
	소계	24	119	86	96	425	45.5	191.4	423.5	1,521	1,018	1,405	5,317.5	57.0	23.9
논의 하기	논의	11	4	5	13	33	3.5	14.8	271.5	84	140	388	883.5	9.3	3.9
	소계	11	4	5	13	33	3.5	14.8	271.5	84	140	388	883.5	9.3	3.9
적용 하기	연구 의의	29	27	19	26	101	10.8	45.4	155	157	80	131	523	5.5	2.3
	연구 적용	24	14	13	13	64	6.8	28.8	43.5	200	186	126	555.5	5.9	2.5
	소계	53	41	32	39	165	17.6	74.3	590	357	266	257	1,078.5	15.6	4.8
확대 하기	연구 한계	26	12	14	21	73	7.8	32.8	80.5	43	71.5	82	277	2.9	1.2
	후속연구 제언	33	42	26	22	123	13.1	55.4	257	249	203.5	144	853.5	8.0	3.8
	소계	59	54	40	43	196	21.0	88.2	337.5	292	275	226	1,130.5	12.0	5.0
계		279	261	191	202	933	100	100	2,771	2,469	1,1842	2,322	9,404	100	42.3

언점’ (1편, 0.4%), ‘결과와 논의’ (1편, 0.4%), ‘분석 및 제언’ (1편, 0.4%) 등 이었다.

셋째, 결론 부분의 제목은 ‘결론’이 절반 이상(115편, 52.8%)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결론 및 제언’ (60편, 27.0%) 이었다. 그 외 기타로는 ‘요약 및 결론’ (7편, 3.1%), ‘결론 및 논의’(6편, 2.7%), ‘결론 및 향후연구’ (3편, 1.3%), ‘결론 및 한계’ (3편, 1.3%), ‘토의 및 결론’ (3편, 1.3%), ‘결론 및 향후연구방법’ (2편, 0.9%), ‘결론 및 향후연구방향’ (2편, 0.9%), ‘논의 및 결론’ (2편, 0.9%), ‘논의 및 제언’ (2편, 0.9%), ‘맺는말’ (2편, 0.9%), 결론 및 시사’ (1편, 0.4%), ‘결론 및 추후연구’ (1편, 0.4%), ‘결론 및 향후과제’ (1편, 0.4%), ‘토론 및 결론’ (1편, 0.4%), ‘결어’ (1편, 0.4%), ‘결언’ (1편, 0.4%), ‘나오며’ (1편, 0.4%) 등 이다.

넷째, 분석대상 논문에서 결론의 각 구성요소별 총출현빈도(n=933)와 총논문(n=222)내 출현비율을 살펴보면, ‘연구결과 요약’이 210회 출현하여 단연 우세하였다. 이는 총출현빈도의 22.5%이며, 총논문에서 94.5%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전체 과정 요약’

(199회, 21.3%, 89.6%), ‘후속연구 제언’ (123회, 13.1%, 55.4%), ‘연구 의의’ (101회, 10.8%, 45.4%)순 이다. 그 외에 ‘연구 한계’ (73회, 7.8%, 32.8%), ‘연구 적용’ (64회, 6.8%, 28.8%), ‘연구 필요성’ (48회, 5.1%, 21.6%), ‘탐구주제의 현황’ (47회, 5.0%, 21.1%), ‘논의’ (33회, 3.5%, 14.8%), ‘탐구주제 개념’ (18회, 1.9%, 8.1%), ‘연구 절차’ (16회, 1.7%, 7.2%) 순이다(표 2).

다섯째, 상위범주별로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출현하는 상위범주는 ‘요약하기’ (425회, 45.5%)이다. 그 다음으로는 ‘확대하기’(196회, 21.0%)이며, ‘적용하기’(165회, 17.6%)이며, ‘연구관심 끌어내기’ (113회, 12.1%), ‘논의하기’ (33회, 3.5%, 14.8%)순 이다.

‘요약하기’ (425회, 45.5%) 범주에서 가장 우세한 출현 요소는 ‘연구결과 요약’(210회, 22.5%, 94.5%)이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 전체 과정 요약’(199회, 21.3%, 89.6%), 연구절차 (16회, 1.7%, 7.2%)이다. ‘확대하기’(196회, 21.0%)에서는 ‘후속연구 제언’ (123회, 13.1%, 55.4%), ‘연구 한계’(73회, 7.8%, 32.8%) 순 이다. ‘적용하기’ (165회, 17.6%) 범주에서는 ‘연구 의의’ (101회, 10.8%, 45.4%). ‘연구 적용’ (64회, 6.8%, 28.8%)순 이다. ‘연구관심 끌기’ (113회, 12.1%, 88.2%) 범주에서는 ‘연구 필요성’ (48회, 5.1%, 21.6%), ‘탐구주제 현황’ (47회, 5.0%, 21.1%) 순 이다. ‘논의하기’ (34회, 3.6%)범주에서 ‘논의’ (33회, 3.5%, 14.8%) 는 소수이다(표 2).

여섯째, 결론의 구성요소별 서술 분량(줄)을 살펴보면 ‘연구결과 요약’의 서술분량 (4,477.5줄, 47.6%, 20.1줄)이 단연 우세하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전체 과정 요약’(1,795 줄, 19.0%, 8.0줄), ‘논의’(883.5줄, 9.3%, 3.9줄), ‘후속연구 제언’(753.5줄, 9.0%, 3.8줄), ‘연구 적용’(555.5줄, 5.9%, 2.5줄), ‘연구 의의’(523줄, 5.5%, 2.3줄), ‘탐구주제 현황’(245 줄, 2.6%, 1.1줄), ‘연구 한계’(227줄, 2.9%, 1.2줄), ‘연구 필요성’(226.5줄, 2.4%, 1.0줄), ‘연구 절차’ (90줄, 0.9%, 0.4줄), ‘탐구주제 개념’(81줄, 5.8%, 0.3줄) 이다(표 2).

일곱째, 상위범주별로 서술 분량(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출현하는 상위범주는 ‘요약하기’ (5,367.5줄, 56.5%, 23.9줄)이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확대하기’(1,130.5줄, 12.0%, 5.0줄), ‘적용하기’(1,078.5줄, 11.4%, 4.8줄), ‘논의하기’(883.5줄, 9.3%, 3.9줄), ‘연구관심 끌어내기’(552.5줄, 5.8%, 2.4줄) 순이다(표 2).

‘요약하기’ (425회, 45.5%)에서 분량이 가장 우세한 요소는 ‘연구결과 요약’(4,477.5줄, 47.6%)이며, ‘연구 전체 과정 요약’(1,795줄, 19.0%), ‘연구 절차’ (90줄, 0.9%)순 이다. 그 다음으로는 서술 분량에서 2순위인 ‘확대하기’(1,130.5줄, 12.0%) 범주에서 ‘후속연구 제언’(853.5줄, 9.0%), ‘연구 한계’(277줄, 2.9%)순 이다. ‘적용하기’ (1,078줄, 11.4%)범주에서는 ‘연구 적용’( 555.5줄, 5.9%), ‘연구 의의’ (523줄, 5.5%) 순 이다. ‘연구관심 끌어오기’ (552.5줄, 5.8%)범주에서의 서술분량은 ‘탐구주제 현황’(245줄, 2.6%), ‘연구 필요성’(226.5줄, 2.4%), ‘개념’(81줄, 0.8%)순 이다. ‘논의하기’ (885.5줄, 9.3%, 3.9%)에서 ‘논의’는 (883.5줄, 9.3%, 3.9%) 소수 이다(표 2).

## 2. 결론의 구조

결론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수는 각 논문당 평균 4.2개의 결론 구성요소를 서술하고 있다(표 2). 상세히 검토하면, 3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논문이 62편(27.9%)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5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논문이 54편(24.1%), 4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논문이 53편(23.8%)이다. 즉, 결론은 3개에서 5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외에 6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논문이 24편(10.8%), 2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논문이 15편(6.7%), 7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논문이 13편(5.8%)이었다(표 3).

〈표 3〉 구성요소별 논문 수

구성요소 (개)	1	2	3	4	5	6	7	계
논문 (편)	1	15	62	53	54	24	13	222
%	0.4	6.7	27.9	23.8	24.1	10.8	5.8	100

결론을 시작하는 도입부의 첫 번째 요소로 가장 우세한 요소는 ‘연구 전체 과정 요약’(130편, 58.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 첫 번째 요소로는 ‘탐구주제 현황’(43편, 19.3%), ‘연구 필요성’(28편, 12.6%), ‘연구 개념’(13편, 5.8%), ‘연구 결과’(5편, 2.2%), ‘연구 한계’(2편, 0.9%), ‘연구 의의’(1편, 0.4%) 순으로 출현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결론을 마무리하는 최종 요소로 가장 우세한 것은 ‘후속연구 제언’으로 약 절반 정도(107편, 48.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결과 적용’(46편, 20.7%), ‘연구의의’(21편, 10.3%) 등이 최종 요소로 출현하였다.

결론의 구성요소가 배열된 순서가 결론의 구조 유형(pattern)이다. 본 연구결과 결론 구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였다. 비교적 우세하게 나타난 한 가지 유형과 다소 빈약하지만 유형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 결론 유형은 결론의 도입부로 ‘연구 전체 과정 요약 - 연구결과 요약’ 순으로 기술하는 유형이며, 절반 이상(107편, 52.9%)을 차지하였다. 결론의 도입부로 ‘연구 전체 과정 요약 - 연구결과 요약’ 순서 다음에 연결되는 세 번째 요소는 5가지로 나타났다. 연구 적용(24편, 10.8%), 연구 의의(23편, 10.3%), 연구 한계(17편, 7.6%), 논의(16편, 7.2%), 후속연구 제언(15편, 6.7%)이었다. 연결되는 네 번째 요소는 후속연구 제언(19편, 8.5%), 연구 의의(15편, 6.7%), 연구 한계(15편, 6.7%), 연구 적용(8편, 3.6%) 순 이었다(표 4).

〈표 4〉 ‘연구전체 과정 요약 - 연구결과 요약’ 순 결론의 구조 유형(논문 수)

1	2	3	4	5	6	
연구 전체 과정 요약 (107)	연구결과 요약 (107)	연구결과 적용(24)	연구 한계(4)	- 후속연구 제언(4)		
			후속연구 제언(1)			
			연구 의의(2)	- 논의(1) - 연구한계(1)	- 후속연구 제언(1)	
		연구 의의(23)	후속연구 제언(9)			
			연구 한계(7)	- 후속연구 제언(6)	- 연구 적용(1)	
			적용(2)			
		연구 한계(17)	후속연구 제언(9)	- 연구의의 (2)		
			연구 의의(5)	- 연구 적용(1) - 후속연구 제언(3)	- 연구 적용(1)	
			연구 적용(2)	- 연구 의의(1) - 후속연구 제언(1)		
		논의(16)	연구 의의(7)	- 후속연구 제언(3) - 한계(4)		- 후속연구 제언(4)
			연구 적용(3)			
			연구 한계(3)	- 연구 의의(1) - 후속연구 제언(1)		
		후속연구 제언(15)	연구 적용(1)			
			연구 의의(1)			
			연구 한계(1)			

다소 빈약하지만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구체화된 구조 유형은 도입부가 ‘탐구 주제 현황 - 연구 전체 과정 요약 - 연구결과 요약’(26편, 11.7%)순 기술이다. 여기에 연결되는 네 번째 요소는 5가지로 나타났다. 연구 의의(5편, 2.2%), 연구 적용(4편, 1.8%), 후속연구 제언(4편, 1.8%), 연구 한계(2편, 0.9%), 논의 (1편, 0.4%)이었다(표 5).

〈표 5〉 ‘탐구주제 현황-연구 전체 과정 요약-연구결과 요약’ 순 결론의 구조 유형(논문 수)

1	2	3	4	5	6	7
탐구주제 현황(26)	연구 전체 과정 요약 (26)	연구결과 요약 (26)	연구 의의(5)	- 후속연구 제언(3)	- 연구 적용(1)	
				- 연구 적용(1)		
			연구 적용(4)	- 후속연구 제언(1)		
				- 연구 한계(2)	-연구 의의(1)	- 후속연구 제언(1)
			후속연구 제언(4)	- 연구 의의(1)		
			연구 한계 (2)	- 후속연구 제언(2)		
논의(1)	- 연구 의의(1)	- 한계(1)	- 후속연구 제언(1)			

## V. 논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논문의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가 생산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며, 동시에 독자들에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인 후속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시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논문의 결론부는 연구의 최종 결론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의 특징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론 구조의 공통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1. 문헌정보학 결론 부분의 특징

본 연구결과 나타난 문헌정보학 결론 부분의 특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논문작성법에 따르면 결과(Result) 부분에서는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fact)만을 해석 없이 제시하고, 논의(discussion) 부분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거나 관련연구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결론 전(前) 장의 제목이 ‘논의’가 아니라 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분석’(63편, 28.3%)과 ‘결과’(54편, 24.3%) 라는 것은 독립된 장으로써 ‘논의(discussion)’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문헌정보학 논문의 몇 가지 특징을 만들어 낸다. 첫째, 별도의 논의 부분(chapter)이 없이 결과 부분에서 연구의 결과와 논의가 구분 없이 함께 혼합하여 서술하는 경향이거나, 둘째, 결론 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문헌정보학 논문 결론의 서술분량이 많아지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논문 구조에서 결과, 논의, 결론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문헌정보학 논문 구조의 특징이자 취약점으로 거론 할 수 있다.

결론 도입부의 첫 번째 요소로 가장 우세한 요소는 ‘연구 전체 과정 요약(130편)’이며, 결론을 마무리하는 최종 요소로 가장 우세한 것은 ‘후속연구 제언’(107, 48.1%)이다. ‘후속연구 제언’이 최종 마무리 요소로 우세하게 나온 연구결과는 응용언어학 연구결과(이주희 2012, 박지희 2016)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연구결과 요약’(210회, 94.5%) 은 출현 빈도 면에서도 단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응용언어학 분야의 결론 분석 연구(Yang & Allison 2003; 이주희 2012, 박지희 2016)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요약’은 출현빈도 뿐 만 아니라, 결론 장의 분량 면에서도 단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요약’은 20.1줄로 결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분량의 절반 이상은 연구결과를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나열하

여 제시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며, 이는 문헌정보학 결론 구성의 한 특징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확대하자면 이러한 결론의 특성은 비단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국내 실증적 사회과학 논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향이기도 하다.

결론 구조 유형으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 유형은 ‘연구 전체 과정 요약 - 연구결과 요약’ 순으로 기술하는 유형(107편, 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결론의 주 기능이 ‘요약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자들의 일차적 관심은 결론의 주요 역할을 연구 결과의 전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분석결과 상위범주 ‘요약하기’에 포함된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 전체 과정 요약’(199회, 89.6%)은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의 필수적 구성요소이자 결론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그 외 결론의 마무리 구성요소로서 ‘후속연구 제언’(123회, 13.1%, 55.4%)이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다. ‘연구 의의’, ‘연구 한계’, ‘연구 적용’의 제시 등은 문헌정보학 논문 결론 부분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확대하는데 필수적 기능이지만 선택적,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결론구조의 공통점 논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론 구조의 공통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 모형은 연구자의 착안점이나 강조점, 분석 대상 주제분야에 따라 구성요소나 명명(命名)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결론 구조를 ‘연구관심 끌어내기’, ‘요약하기’, ‘논의하기’, ‘적용하기’, ‘확대하기’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의 결론 구조를 모두 분석하여 결론의 공통 구조를 ‘도입하기’, ‘요약하기’, ‘종결하기’의 3가지로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표 6).

‘도입하기’기능은 결론의 도입부로서 논문이 다루고 있는 탐구현상이나 주제에 관한 배경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언급했던 탐구 주제 현황, 연구의 필요성, 개념이나 용어 정의를 간략하게 재제시하여 독자들에게 관심과 기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도입하기’기능의 서술 없이 단도직입으로 결론의 본문에 해당하는 ‘요약하기’로 결론을 시작하는 경향이다. 반면에 인문사회과학분야 논문은 ‘도입하기’기능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도입하기’기능은 결론 구조의 필수 기능이기 보다는 장식(裝飾)적 기능에 해당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관심 끌어내기(탐구주제 현황, 연구필요성, 연구 개념 설명)’의 ‘도입하기’기능은 113회(12.5%)로 나타났다(표 2).

‘요약하기’기능은 연구의 전체과정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전체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의 본문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구조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기능이다. 결론의 핵심기능이자 필수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입적 재진술’(Bunton 2005), ‘연구 재방문하기’(Soler-Monreal 2015), ‘[연구] 목적의 재진술과 연구방법론적 접근’(이주희 2012), ‘배경 정보 제공’(박지희 2015),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론의 재진술’ (Bitchener 2010), ‘보고하기’ (Hewing 1993), ‘연구 요약하기’ (Yang & Allison 2003), ‘요약하기(연구전체과정 요약, 연구결과 요약, 연구절차 기술)’(본 연구), ‘연구공간 통합하기’ (Bunton 2005), ‘연구공간 통합하기’ (Soler-Monreal 2015), ‘연구결과의 요약 (Bitchener 2010), ‘결과의 요약(핵심결과 요약)’ (이주희 2012), ‘정보무브(이론/연구목적, 방법론의 배경 제공)’ (Jahangard, Rajabi, & Khalaji 2014) ‘연구결과들’ (Jahangard, Rajabi, & Khalaji 2014), ‘결과의 진술 제시’ (박지희 2015)로 언급되는 부분이다(표 6).

‘마무리하기’ 기능은 저자들이 논문을 종료하면서 독자들에게 설득과 후속연구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사하는 것이다. 결론에서 ‘요약하기’한 이후에 주로 종결부로서 선택적으로 제시 되었다. ‘마무리하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연구 의의’, ‘연구 적용’, ‘연구 한계’, ‘후속연구 제언’을 들 수 있다. 논문의 종결부로서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필수적으로 언급

〈표 6〉 결론구조의 비교

상위범주	도입하기	요약하기	마무리하기	비고
기능	장식적 기능	필수적 기능	선택적 기능	
연구				
Hewing(1993)		‘보고하기’	‘논평하기(평가, 추론, 주장 및 결론)’, ‘제안하기’	
Yang & Allison (2003)		‘연구 요약하기’	‘연구 평가하기(연구의의, 한계)’, ‘연구의 연역추론(후속연구 제언, 교육적 의미 도출)’	
Bunton(2005)		‘도입적 재진술’, ‘연구공간 통합하기’, ‘결론적 재진술’	‘실제적 적용/함의/권고’, ‘후속연구 제언’	
Bitchener(2010)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론의 재진술’, ‘연구결과의 요약’	‘결과나 발견에 대한 평가/논평’, ‘연구의 기여도(공헌도)평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Morales(2012)				Yang & Allison (2003)모형 적용
이주희(2012)		‘[연구] 목적의 재진술과 연구 방법론적 접근’, ‘결과의 요약(핵심결과 요약)’	연구의 의의 평가,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Bitchener(2010) 모형 수정
Jahangard, Rajabi, & Khalaji (2014)		‘정보무브(이론/연구목적, 방법론의 배경 제공)’, ‘연구결과들’	‘주장(결과의 일반화)’, ‘제약’, ‘권고(후속연구)’	Dudley-Evans (1994) 모형 적용
Soler-Monreal (2015)		‘연구 재방문하기’,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론의 재진술’, ‘연구공간 통합하기’	‘실제적 적용과 함의 제시하기’, ‘후속연구 권고하기’	
박지희(2016)		‘배경 정보 제공(연구목적, 연구방법 진술)’, ‘결과의 진술 제시(핵심결과 요약)’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논평(선행연구 비교, 실무적 주장,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Bitchener(2010) 모형 수정
Zamani, & Ebadi (2016)				Yang & Allison (2003) 모형 적용
김갑선(2018)	‘연구관심 끌어내기(탐구주제 현황, 연구필요성, 연구 개념 설명)’	‘요약하기(연구 전체 과정 요약, 연구결과 요약, 연구절차 기술)’	‘적용하기(연구의의, 적용)’, ‘확대하기(연구한계, 후속연구)’	

되기 보다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후속연구와 연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몇 몇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마무리하기’ 기능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는 ‘후속연구 제언’이며, 본 연구에서도 높은 빈도로 적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논평하기(평가, 추론, 주장 및 결론)’ (Hewing 1993), ‘제안하기’ (Hewing 1993), ‘연구 평가하기 (연구의의, 한계)’ (Yang & Allison 2003), ‘연구의 연역추론 (후속연구 제언, 교육적 의미 도출)’ (Yang & Allison 2003), ‘실제적 적용/함의/권고’ (Bunton 2005), ‘후속연구 제언’ (Bunton 2005), ‘연구의 기여도 평가’ (Bitchener 2010), ‘후속연구 제언’ (Bitchener 2010), ‘실제적 적용과 함의 제시하기’ (Soler-Monreal 2015), ‘후속연구 권고하기’ (Soler-Monreal 2015), ‘결과나 발견에 대한 평가/논평’ (이주희 2012) ‘연구의 기여도(공헌도)평가’ (이주희 201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주희 2012), ‘주장(결과의 일반화)’ (Jahangard, Rajabi, & Khalaji 2014), ‘제약’ (Jahangard, Rajabi, & Khalaji 2014), ‘권고(후속연구)’ (Jahangard, Rajabi, & Khalaji 2014),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논평’ (박지희 2015)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박지희 2015), ‘적용하기(연구의의, 적용)’ (본 연구), ‘확대하기(연구한계, 후속연구)’ (본 연구)로 지칭하는 부분이 해당된다(표 6).

## VI. 결론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222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결론 구조의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학술지논문 결론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요약하기’범주의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 전체 과정 요약’이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 구조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핵심 기능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론을 기술하는데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 전체 과정 요약’이 필수 요소라는 것이며, 여타의 결론 구성 요소는 선별적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의 전체 구조에서 결과(result), 논의(discussion), 결론(conclusion)의 특성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분석이 시도된 바 없는 논문의 결론 부분의 구조와 유형을 구명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의 분석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일반화된 결론 유형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 구조의 분석 도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뿐 아니라, 제 사회과학분야의 논문의 결론 구조를 분석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용적 의의는 첫째, 문헌정보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논문을 작성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논문의 과학적 구조에 관



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비연구자들은 논문 작성법과 논문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보다는 기존 논문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체득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논문 결론의 구조와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문헌정보학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내 박사학위논문과 문헌정보학 국외학술지의 결론 구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다양한 분석 결과를 비교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 국한하였다. 여타의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의 결론 구조와 비교한다면 유의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론의 구조 분석은 주로 결론 텍스트에 관한 계량적 분석에 치중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론을 기술하는 연구 저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나 면담을 통해 결론 구조 구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는 연구접근도 논문의 결론 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장민경. 2015. 학위논문 초록의 MOVE 관련 연구. 『언어과학』, 22(1): 23-48.
- 김영규, 이은하. 2008.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연구 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36: 43-67.
- 박수연. 2016.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의 장르 분석 연구 : <선행 연구> 부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은선. 2006.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 『한국어교육』, 17: 191-210.
- 박지희. 2016.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경영학 학위논문의 장르분석 :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지혜. 2012. 『한국어 학위논문 결론의 장르 분석: 한국어 학술논문 결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유민애. 2015.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위논문 초록 쓰기 교육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5(8): 639-661.
- 윤여옥. 2011.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연구방법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이선영. 2015. 『외국인 유학생의 쓰기 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학 분야 학위논문의 장르 비교 분석 : 선행연구 고찰 부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이수연. 2011.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과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이슬. 201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경영학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이주희. 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론 부분의 장르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장우권. 2016. 초록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3(3): 107-131.
- 장혜란. 1996. 한글초록의 현황과 내용 분석: 사회과학분야 저자초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 35-48.
- 조은영. 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국문 초록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Al-Khasawneh, Fadi Maher. 2017. "A Genre Analysis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Written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and Language Research*, 4(1):1-13.
- Bitchener, J. 2010. *Writing and Applied Linguistics Thesis or Dissertation: A Guide to Presenting Empirical Research*.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Brett, P. 1994. "A Genre Analysis of the Results Section of Sociology Articl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3(1), 47-59.
- Bruce, Ian, 2008. "Cognitive Genre Structures in Methods Sections of Research Articles: A Corpus Study."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7(1): 38-54.
- Bruce, Ian, 2008. "Results Sections in Sociology and Organic Chemistry Articles: A Genre Analysi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8(2):105-124.
- Bunton, David, 2005. "The Structure of PhD Conclusion Chapter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4(3): 207-224.
- Cotos, Elena, Sarah Huffman, & Stephanie Link. 2017. "A Move/Step model for Methods Sections: Demonstrating Rigour and Credibility."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46: 90-106.
- Darabad, Ali Mohammadi. 2016. "Move Analysis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A Cross-Disciplina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Linguistics*, 8(2): 125-140.
- Dudley-Evans, Tony. 1994. Genre analysis: An Approach to Text Analysis for ESP. In M. Coulthard (Ed.), *Advances in Written Text Analysis*. London: Routledge.

- 210–228.
- Hewing, M. 1993. The End! How to Conclude a Dissertation. In G. M. Blue (Ed.), *Language, Learning and Success: Studying through English*. London: Modern English Publications and The British Council, Macmillan.
- Hopkins, A., & Dudley–Evans, A. 1988. “A Genre–Based Investigations of the Discussions Sections in Articles and Dissertati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7(2), 113–122.
- Jahangard, Ali, Amin Rajabi–Kondlaji, and Karim Khalaji. 2014. “A Comparison of Moves in Conclusion Sections of Research Articles in Mechanical Engineering and Allied Lingu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Learning and Applied Linguistics World*, 5(2): 346–359.
- Kim Eungi. 2014. “An Analysis of Move Patterns in Abstracts of Social Sciences Researc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283–309.
- Kim, Eungi. 2015. “Remnants of Culture in Journal Article Titles: A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345–372.
- Kim, Eungi. 2016. “Abstracts in Medical Science Journals: An Analysis of Subheadings in Structured Abstrac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199–216.
- Kwan, Becky S.C. 2006. “The Schematic Structure of Literature Reviews in Doctoral Theses of Applied Linguistic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5(1): 30–55.
- Lindeberg, A.C. 1994. An Exploratory Study of Knowledge Claims in Article Introductions in Three Disciplines: Finance, Management, and Marketing. In M. Majapuro, & T. Nikko (Eds.), *Talous ja kieli II (Business and Language II)*. Helsinki: Publications of the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647–655.
- Lores, R. 2004. “On RA Abstracts: From Rhetorical Structure to Thematic Organization.” *Journal of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3: 280–302.
- Maswana, S., & T. Kanamaru, & A. Tajino. 2015. “Move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across Five Engineering Fields: What They Share and What They Do Not.” *Ampersand*, 2(1–11).

- Morales, R. C. 2012. "Conclusions in Research Articles: A Filipino–Japanese Contrastive Rhetorical Study." *Philippine ESL Journal*, 8 [Available on–line].  
<[www.philippine-esl-journal.com/V8\\_A4.pdf](http://www.philippine-esl-journal.com/V8_A4.pdf)> [cited 2018. 8. 10].
- Ozturk, I. 2007. "The Textual Organization of Research Article Introductions in Applied Linguistics: Variability within a Single Disciplin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6(1): 25–38.
- Peacock, M. 2002. "Communicative Moves in the Discussion Section of Research Articles." *System*, 30(4), 479–497.
- Samraj, B. 2005. "An Exploration of a Genre Set: Research Article Abstracts and Introductions in Two Disciplin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4(2): 141–156.
- Sollaci, Luciana B. and Mauricio G. Pereira. 2004. "The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IMRAD) Structure: A Fifty–Year Survey." *J Med Libr Assoc.* 92(3): 364–371.
- Soler–Monreal, Carmen. 2015. "A Move–Step Analysis of the Concluding Chapters in Computer Science PhD Theses." *n Europea de Lenguas para Fines Espec. IBERICA*, 32: 105–132. <<http://www.redalyc.org/html/2870/287048507006/>> [cited 2017. 7. 30].
- Swales J. M., & Feak, C. 2004. *Academic Writing for Graduate Students: Essential Tasks and Skill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seng, F. 2011. "Analyses of Move Structure and Verb Tens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Jour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2). <[www.ccsenet.org/ijel](http://www.ccsenet.org/ijel)>
- Wu, Jianguo. 2011. "Improving the Writing of Research Papers: IMRAD and Beyond." *Landscape Ecology*, 26(10): 1345–1349. DOI: 10.1007/s10980–011–9674–3
- Yang, Ruiying and Desmond Allison. 2003. "Research Articles in Applied Linguistics: Moving from Results to Conclusion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2: 365–385.
- Yaghoubi–Notash, M., & H. Tarlani Aliabadi. 2012. "A Matter of Who Writes: Generic Variations in Applied Linguists RAs by English vs. Persian Writer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2(2): 227–235.
- Zamani, G. & Ebadi, S. 2016. "Move Aanalysis of the Conclusion Sections of Research Papers in Persian and English." *Cyprio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 11(1): 9–2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Woo-Kwon. 2016.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bstracts : Focused 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107-131.
- Chang, Hye-Rhan.1996. "An Analysis of Current States and Information Content of Author Abstract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35-48.
- Cho, Eun Young. 2012. *A Genre-Analytic Study of the Korean Abstract Sections in MA and PhD Theses Written in Korean: Implications for KAP Thesis Writing Instruction*.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Kang, Min-Kyung.2015. "A Study on the Move in Dissertation Abstracts."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2(1): 23-48.
- Kim, Young-kyu & Eun-ha Lee, 2008. "A Genre-Analytic Study of Korean Research Article Introductions with a Focus on Content Analysis." *Bilingual Research*, 6: 43-67.
- Lee, JuHee. 2012. *A Genre-Analytic Study of the Conclusions Sections in MA Theses Written in Korean: Implications for KAP These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Lee, Seul.2016. *Genre Analysis Study on the Introductions in Korean Business Theses Based on the Bunton's Modified CARS+2 Model*.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Lee, SooYeon. 2011. *A Genre-Analytic Study of the Korean Abstract Sections in MA and PhD Theses Written in Korean: Implications for KAP Thesis Writing Instruction*.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Lee, Sunyoung. 2015. *Study on the Genre Comparative Analysis in MA Theses for KAP Thesis Writing Instruction: Focusing on the Literature Review Section*.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Park, Eun Sun. 2006. "A Genre Analysis of Introductions in Korean Theses Based on

- the CARS+3 Model.”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7: 191–210.
- Park, Ji Hee. 2016. *The Genre Analysis on Business Master Thesis for Korean Language Writing Education of Academic Purpose : Focusing on the Conclusion Major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M. 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Park, Soo Yeon. 2016. *A Study on the Genre Analysis of the Korean Literature Review Sections in the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mplications for KAP Thesis Writing Instruction*. Ph.D. dis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Korea.
- [Seo, Ji Hye] 2012. *Genre Analysis of the Conclusion of Korean Thesis :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Conclusion of Korean Academic Papers*. M. A.,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Korea.
- Yoon, Yeook. 2011. *A Genre-Analytic Study of the Methods Sections in MA Theses Written in Korean: Implications for KAP Thesis Writing Instruction*.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Yu, Minae. 2015. “A Study on Teaching to Writing Abstracts of Dissertation for Korean Learn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8): 639–661.